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. 11. 12(목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배포일시	2020. 11. 12.(목)	담당부서	구주통상과
담당과장	송주호 과장(044-203-5660)	담 당 자	이기헌 사무관(044-203-5666)

산업부, 브렉시트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

- 한-영 자유무역협정 통해 브렉시트 후에도 변함없는 통상관계 유지 강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11.12.(목) 서울 무역협회에서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**내년 1월 브렉시트**(Brexit, 영국의 유럽연합(EU) 탈퇴)**의 실질적인 이행*에 앞서 정부와 업계의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**하기 위해 **업계 관계자**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**간담회를 개최**했다.

* 영국은 금년 1.31.(금) 브렉시트 단행 후, 한시적으로 EU 시장에 잔류하는 전환기간을 갖고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, 동 전환기간은 올해 12.31.(목)로 종료 예정

브렉시트 대응 업계 간담회 개요

◈ 일시 및 장소 : 11.12.(목) 15:00, 서울 무역협회 회의실

◈ 참석자:

- ○ **(정부)** 산업통상자원부(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주재)
- ○ **(업계)** 자동차, 조선, 기계, 바이오 등 주요 분야별 협·단체 관계자
- ○ **(유관기관)** 무역협회, KOTRA 등

□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체결한 **한-영 자유무역협정(FTA)*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우리기업**이 영국에 수출시 무관세 수출 등 **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동일하게 향유**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,

* 한-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되어, 영국의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-영 FTA가 자동 발효될 예정

○ 우리 기업들이 한-영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**오는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런던 무역관에 '한-영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'를 개소**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.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(EU)간의 진행 중인 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,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.

○ **우리 기업들은 한-영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-영간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애로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긍정 평가**하는 한편, 영국과 유럽연합간 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무역 거래시 관세부과, 통관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.

□ 이와 관련,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"한-영 자유무역협정, 영-유럽연합 협상 동향 등 **브렉시트 관련 정보를 업계와 지속 공유할 계획**"임을 밝히며,

○ "특히, **오는 11.24.(화)**에는 유럽 현지 진출 기업 등 더 많은 우리 기업들과 소통하기 위해 **「브렉시트 대응 및 한-영 자유무역협정 활용 안내 화상 토론회*」도 개최할 예정**"이라고 설명하였다.

* (일시) 11.24(화) 15:30~17:30, (주최) 산업통상자원부, (주관) KOTRA, 무역협회, (화상토론회) 유튜브, (참석자 모집) 11.11(수)~23(월) 무역협회 홈페이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(☎ 044-203-56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